

SVI 입주기업 연합 송년의 밤 개최 수익금 1백만 원 자선단체에 기증



떡거리 · 살거리 · 할거리 · 볼거리 등 다양한 장터 열려

지난 12월 6일 서울벤처인큐베이터(SVI)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SVI CEO 클럽과 입주기업 연합이 공동으로 <사랑의 바자회>와 <벤처인의 밤>을 개최했다.

<사랑의 바자회>는 6일 점심시간동안 입주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제품 및 소장품과 음식들로 ‘떡거리 장터’, ‘살거리 장터’, ‘할거리 장터’, ‘볼거리 장터’를 펼친 것. ‘떡거리 장터’에서는 8개 기업이 나눔의 음식을 준비하여 수익금을 모았으며, ‘살거리 장터’에서는 입주기업의 소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CEO 소장품을 경매에 붙여 참가기업들의 뜨거운호응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할거리 장터’와 ‘볼거리장터’에서도 입주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타로점 보기, 혈당 체크, 안마 체험 등을 펼쳐 시종 일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이어 당일 저녁에 열린 <벤처인의 밤>에서는 저녁식사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지난 2007년 한해를 담은 동영이 상영됐다.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뛰면서 VI라는 한 울타리에서 지내는 1년을 돌아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맥주 맛 알아맞추기 대회’, ‘사랑의 작대기 및 개인별 장기자랑’ 등 흥겨운 시간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2008년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마련한 수익금 1백만 원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할 예정이다.

